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더위를 식혔을까요? (대답을 듣고) 그렇죠, 부채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여름 필수품이었던 부채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부채에 관해 역사, 종류, 예술미, 현대적 계승의 순으로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부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료1) 보시는 것은 기원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창원 다호리 고분의 부채 자루 유물로, 가장 이른 시기의 부채 관련 유물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중국 사람들이 고려의 부채를 서로 얻고자 할 정도로 부채 만드는 기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는 송나라 서공의 『산화봉사 고려도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 시대에는 공조나 지방 감영에 장인을 두고 부채를 만들기도 했으며, 부채의 형태와 소재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 자료2) 우리나라 부채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둥글부채와 접부채로 나뉩니다. 둥글부채는 말 그대로 둥근 형태를 띠는데, 태극 모양을 넣은 태극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접부채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인데, 대궐질로 부챗살을 만들고 종이를 붙여 만든 합죽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채에는 예술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 자료3) 보시는 것은 옷칠을 하거나 자개를 붙인 화려한 옛 부채들인데, 부채 자루 등에 섬세한 문양까지 넣어 그 자체로 하나의 공예 작품이었습니다. (㉣ 자료4) 보시는 것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과 그림을 담은 부채인데요, 난초 그림과 글씨의 조화가 빼어나습니다. 이처럼 운치 있는 그림과 글을 담았기에 부채를 ‘가지고 다니는 미술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자료5) 지금 보시는 것은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홍보 부채, 팬시 부채입니다. 오늘날의 부채들은 이렇게 실용성과 상업성이 강조됩니다. 한편으로는 부채의 예술성에 주목하여 부채를 전통 공예품으로 특화하여 계승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올여름에는 부채를 가까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채를 가까이한다면 냉방병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 사례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과 관련한 제안을 하고 그것에 부수되는 효과를 밝히고 있다.

2. 발표를 참고할 때, ㉠ ~ ㉤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우리나라 부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오래된 부채 관련 유물을 제시한다.
- ② ㉡: 우리나라 부채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유형을 잘 보여 주는 부채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한다.
- ③ ㉢: 전통 공예품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을 부각하기 위해 고급스러운 외장을 한 현대의 공예 부채들을 제시한다.
- ④ ㉣: 우리나라 부채가 지닌 예술미를 알려주기 위해 멋진 그림과 글이 들어가 있는 부채의 사례를 제시한다.
- ⑤ ㉤: 오늘날에도 부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채들의 예를 제시한다.

3. 다음은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두 반응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1: 우리나라에는 질 좋은 닥나무 한지와 잘 쪼개지고 질긴 대나무가 있어 견고한 부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 이런 이야기와 함께 지금도 전통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여 대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면 내용이 더 풍부해졌을 것 같아.

학생 2: 무심코 지나쳤던 부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발표를 듣고,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도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예전에는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발표를 듣고 보니 부채와 관련한 풍습이 더 없는지 인터넷 자료를 통해 찾아보고 싶어졌어.

- ① 발표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 ③ 발표를 듣고 기존에 가졌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④ 발표를 듣고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4~7] (가)는 독서반 학생들과 작가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쓴 건의문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작가님 책에 대해 여쭙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법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멸종 위기종의 이야기를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 인가요?

작가: ㉠저는 10여 년간 환경 단체에 몸담으며 멸종 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모든 생명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학생 2: 그렇군요. 멸종 위기종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설정이 신선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작가: 멸종 위기종도 우리와 동등한 존재임을 독자들이 깨닫길 바랐습니다.

학생 2: 책을 읽는 내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가족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었다는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가: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끔찍한 일이라 저도 무척 슬펐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에서 사육곰 증식을 금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철창 안에서 태어나는 곰은 없습니다.

학생 2: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개하신 멸종 위기종 중에 작가님 마음에 특별히 남는 동식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작가: 저어새가 특히 안타깝습니다. ○○갯벌은 전 세계 2,4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가 찾는 산란지인데, 여전히 매립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갯벌을 매립해서 건물이나 주택을 짓는 게 이득이겠지만, 갯벌은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학생 2: 인간이 결국 다른 생명들의 보금자리를 뺏고 있는 셈이군요.

작가: 그렇지요. ㉢하지만 '생태 통로'처럼 다른 생명들과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학생 1: '생태 통로'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가: 종종 로드킬(roadkill)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로드킬은 야생동물들이 다니던 길에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학생 2: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도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로드킬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생태 통로가 있다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작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려는 노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 댓글을 하나 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달가슴곰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건의한 사람들의 열정 덕분에 정부의 정책을 끌어낼 수 있었죠.

학생 1: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건의문 초고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독서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한 작가님과 대화하며 멸종 위기종도 우리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과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천 앞 도로에서, 지난 주에는 삶이 △△터널 부근에서 로드킬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로드킬 사고의 절반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다니 문제의 심각성이 큼니다. 이러한 사고는 생태 통로가 없거나, 유도 울타리가 없어서 생태 통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생태 통로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생태 통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 울타리를 새로 설치하거나 관리가 안 된 곳은 수리하여 주십시오. 특히 최근 사고가 발생한 우리 시의 ◇◇천과 △△터널 부근을 엄밀히 조사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 통로 설치로 로드킬 사고가 꾸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도 생태 통로를 설치하여 제대로 관리한다면 도로 위에서 죽음을 맞는 야생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생기는 2차 사고도 감소할 것이며, 사고 수습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웅담 채취용 사육 곰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무분별한 갯벌 개발로 저어새는 갈 곳이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달과 삶도 로드킬로 인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A]) 귀중한 생명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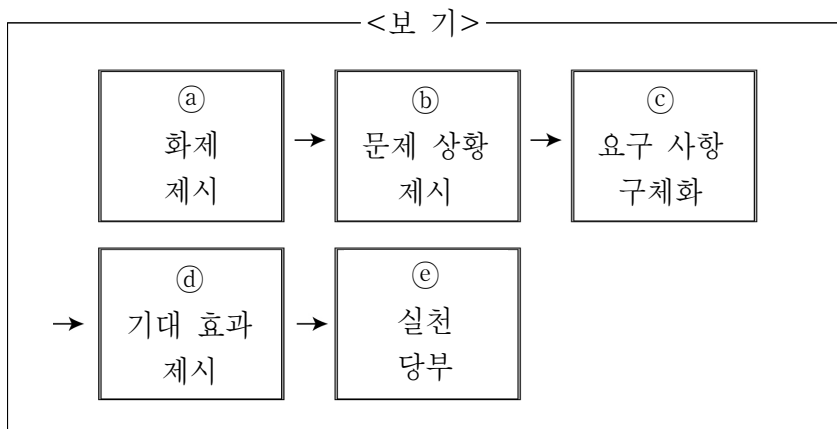
- ① ㉠: 상대의 발언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발언에 공감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③ ㉢: 상대의 발언을 유사한 사례를 들어 보충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발언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발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5. 다음은 (가)를 진행하기 위한 독서반 학생들의 사전 회의이다. (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학생 1: 대화 진행 순서부터 정해야 하는데, ㉠ 우선 찾아뵈 목적을 말씀드리고 책을 쓰시게 된 계기를 여쭙 봐야겠지?
 학생 2: 응. 그리고 ㉡ 이 책의 설정이 무척 신선했잖아. 그 의도도 여쭙 보자.
 학생 1: 좋아. ㉢ 다음으로 책에 나온 멸종 위기종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
 학생 2: ㉣ 책에 미처 소개하지 못해 아쉬운 멸종 위기종이 있는지도 여쭙 보고.
 학생 1: 그래. ㉤ 무엇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질문이 빠질 수 없겠지?
 학생 2: 그렇지. 역할 배분은 어떻게 하지? 내가 전체 진행을 맡고 구체적인 질문은 내가 할까?
 학생 1: 그래, 알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6. (가)를 반영하여 <보기>의 내용 전개에 따라 (나)를 썼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에서 작가가 말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생각과 생명 보호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가)에서 언급된 수달의 사고와 함께 우리 시의 높은 로드킬 사고율을 추가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가)에서 알게 된 생태 통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필요한 장소를 언급하며 생태 통로의 설치와 관리를 구체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④ ㉣: (가)에서 작가가 말한 생태계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진행 중인 생태계 보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가)에서 언급된 반달가슴곰과 저어새의 대조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7. <보기>는 (나)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건의문은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를 위해 비유적 표현과 자신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호소해 보세요.

- ① 도로에서 생을 마감한 수달과 삶을 떠올리면 친구를 떠나보낸 것처럼 슬픔니다.
- ② 수달과 삶의 서식지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 ③ 수달과 삶의 보호에 앞장서서 우리가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 ④ 수달과 삶과 같은 야생동물이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 ⑤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수달과 삶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진로 탐색 활동 시간에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에 실을 글을 쓰고자 함.

[학생의 글]
 평소 한 나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발굴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진로 탐색 활동 시간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천연자원을 찾아보았다.

그중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일라이트(illite)’이다. 일라이트라는 명칭은 1937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그림(Grim) 교수가 처음 발견하여 ‘ILLITE’라고 명명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리노이주(Illinois)에서 발견된 광물(-lite)이란 뜻이다. 일라이트는 지표에 있는 규산염 광물의 화학적 풍화 작용의 산물로서, 주성분이 이산화규소와 산화알루미늄이며, 백운모 혹은 견운모라고 불리는 백색의 점토광물이다.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모’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 광물의 약물적 효능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라이트는 최근 ‘신비의 광물’, ‘미래 자원’으로 불리며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라이트가 환경, 의료, 항공, 미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일라이트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세균이나 곰팡이의 서식

이나 번식을 방지할 뿐 아니라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라이트 매장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충북 영동군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등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매장량은 소량인데 충북 영동군의 매장량은 세계 최고일 뿐 아니라 불순물이 적어서 효용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확신한 몇몇 분들이 오랫동안 일라이트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분들은 일라이트가 언젠가는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 하나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A]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불광불급(不狂不及), 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새로운 천연자원을 발굴하여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8. ‘학생의 글’에서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재 선정의 동기를 밝혀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② 명칭에 얽힌 유래를 소개하여 제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③ 전문기관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④ 제재의 활용 분야를 제시하여 그것의 효용 가치를 드러낸다.
- ⑤ 다른 대상들과 비교하여 제재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밝힌다.

9. <보기>는 ‘학생의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문헌 자료

중국 진한의 『신농본초경』과 조선의 『동의보감』 등의 고서에는 운모가 독성이 없고 성질이 편안하여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부스럼이나 종기의 독을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ㄴ. 전문가 인터뷰

“일라이트는 구리, 아연 등 중금속에 강한 흡착력을 보여 오페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으며, 일라이트에 함유된 리튬과 스트론튬은 뇌 질환과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ㄷ. 신문 기사

충북 영동군은 일라이트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일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샴푸, 토양 개량제 등을 개발해 제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 ① ㄱ을 활용하여, 오래전부터 동양에서 인정받아 온 일라이트의 약물적 효능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일라이트가 환경과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광물이라는 점을 보강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일라이트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힌다.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일라이트가 지닌 자원으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일라이트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기관 간의 협조 체제가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한다.

10.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대표가 그중 한 분으로, 일라이트가 인체에 유익한 것을 확신하여 여든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분들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지자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 ①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제재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겠어.
- ② 활동을 통해 느끼거나 깨달은 바를 예상 독자에게 전달했다면 좋겠어.
- ③ 글의 서두에 제시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면 좋겠어.
- ④ 글의 중간 부분에서 소개한 주요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어.
- ⑤ 제재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면 좋겠어.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은 상대 높임에 따라 다양한 의문형 종결 어미로 표현되며, 의문사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의문문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이다.

판정 의문문은 화자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판정 의문문이 부정문일 때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이면 ‘응/예/네’로, 부정적이면 ‘아니(요)’로 대답한다. 판정 의문문 중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할 때는 어미 ‘-지’ 또는 ‘-지 않-’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청자가 밥을 먹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밥은 먹었지?” 또는 “밥은 먹었지 않니?”라는 의문문을 쓸 수 있다. 한편 “너는 학교에 갔니 안 갔니?”처럼 선택을 요구하는 의문문도 가부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판정 의문문에 포함한다.

설명 의문문은 주로 의문사가 사용되어 그 의문사가 가리키는 내용에 대하여 청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의문사에는 ‘누구, 무엇, 어디, 언제’ 등의 의문 대명사, ‘몇, 어떤’과 같은 의문 관형사, ‘왜, 어찌’와 같은 의문 부사, ‘어떠하다, 어찌하다’와 같은 의문 용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디 가니?”의 경우, “학교 가요.”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면 설명 의문문이다. 의문 대명사가 포함된 의문문의 경우, 상황에 따라 판정 의문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의 의문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앞의 “어디 가니?”의 경우, “예.” 또는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면 판정 의문문이 되며, 이때의 ‘어디’는 부정칭 대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보조사를 사용해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다. 즉, 의문사나 ‘-너’, ‘-뇨’와 같은 종결 어미 외에도 ‘가’와 ‘고’와 같은 보조사를 이용하여 의문문을 만들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일찍 등교한 친구끼리 교실에서
A: 왜 이리 힘이 없어. ㉠ 아침 못 먹었어?
B: 응, ㉡ 너도 못 먹었지? 매점 가서 해결하자.

○ 함께 하교하는 친구끼리 버스 안에서
A: ㉢ 너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니?
B: 아니. ㉣ 넌 무엇을 하니?

○ 친구끼리 길을 걸으면서
A: ㉤ 아까부터 왜 자꾸 웃기만 하는 거야?
B: 어제 본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나서.

- ① ㉠: 청자의 반응으로 보아 청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이어지는 대답에 따르면 의문사가 가리키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청자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하면 의문사를 부정칭 대명사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청자의 반응으로 보아 화자는 의문의 초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중세 국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탐구 과제] 다음에 제시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알아보자.

ㄱ. 이 쓰리 너희 종가
[현대 국어] 이 딸이 너희의 종인가?

ㄴ. 이 大施主(대시주)의 功德(공덕)이 하녀 저그녀
[현대 국어] 이 대시주의 공덕이 많으나 적으냐?

ㄷ. 이 옛던 光名(광명)고
[현대 국어] 이것이 어떤 광명인가?

ㄹ. 太子(태자) | 이제 어디 잇느뇨
[현대 국어] 태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탐구 결과] ‘ㄱ’과 ‘ㄴ’은 판정 의문문에, ‘ㄷ’과 ‘ㄹ’은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 ① 판정 의문문과 달리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를 활용하였다.
- ②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의문사가 따로 있었다.
- ③ 판정 의문문을 만들 때는 보조사와 종결 어미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 ④ 판정 의문문에 사용되는 보조사와 종결 어미의 형태가 설명 의문문과 달랐다.
- ⑤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이 청자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의문문으로 쓰이기도 했다.

1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보 기>

‘팥빵’은 ㉠ 이/가 일어나서 [판빵]으로 발음되고,
‘땀땀’은 ㉡ 이/가 일어나서 [만땀]으로 발음된다.

- ① 낮설고 ② 놓더라 ③ 맞는지
- ④ 먹히는 ⑤ 애타한

14. ㉠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쉼표(,)'의 대표적인 쓰임들이다.

-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 ㉠
-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
-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
-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
-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

- ① ㉠: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 ② ㉡: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 ③ ㉢: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 ④ ㉣: 네, 지금 가겠습니다.
- ⑤ ㉤: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15.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 생: 선생님, '잊혀진 계절'과 '잊힌 계절'의 차이점이 뭔가요?

선생님: '잊혀진'은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쓴 ㉠이중 피동 표현이야.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와 '-아/어지다'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잊혀진'의 경우 기본형 '잊다'의 어근 '잊-'에 피동 접미사 '-히-'만 붙어도 피동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데, '-어지다'까지 불필요하게 붙여 쓰고 있는 거지.

- ① 안개에 가려진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다.
- ② 칠판에 쓰여진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 ③ 예쁜 그릇에 담겨진 음식이 먹음직스럽다.
- ④ 아이는 살짝 열린 문틈에 바짝 다가섰다.
- ⑤ 스크린을 통해 보여진 그 풍경은 아름다웠다.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상 앞에 ㉠ 놓였던 철학자 ㉡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그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여주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 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 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 ②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가리킨다.
- ③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 ④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 ⑤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

17. ㉠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되도록 이끈다.
- ②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어 주체와의 합일을 이룬다.
- ③ 주체의 분열을 유도하여 자기성이 소멸되도록 만든다.
- ④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도록 한다.
- ⑤ 주체를 열린 세계에서 갇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18.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 ②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었다.
- ③ 들판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가 놓여 있었다.
- ④ 하루빨리 다리가 놓여야 학교에 갈 수 있다.
- ⑤ 꽃무늬가 놓인 장롱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난다.

19. ㉢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타자는 나와 투쟁의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적이다.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 ① ㉢는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 ② ㉢는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 ③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와 다르군.
- ④ ㉢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유사하군.
- ⑤ ㉢와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유사하군.

20. <보기>는 학급 토론의 한 장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토론 주제 :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A :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B : 살 길을 찾아온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한다. 그들은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 주는 것은 당연하다.

- ① A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군.
- ② A는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군.
- ③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B가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 ⑤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군.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반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내용증명은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한다.

내용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우선,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다.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

고, 제목에는 손해 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담겨야 한다.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 관계와 요구 사항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한다.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증명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최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냄.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제도의 특징과 기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제도의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특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④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⑤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그 속성을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 ②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③ 내용증명 발송 직후 발신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내용증명을 위해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제출하여 발신인도 그중 하나를 갖는다.
- 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발송한 내용증명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3. [A]를 바탕으로 다음의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증명

수신인 : □□시 □□구 □□동 □□번지㉠
 ◇◇ 상사

방문판매 계약 관련㉡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의 아들 홍○○(만 16세)가 2021년 6월 1일 귀사의 서적 시리즈 1세트를 월 15,000원씩 2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곧장 계약하였습니다.

삭제 (홍길동인)㉢

3. 그러나 본인의 아들 홍○○은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책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4.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서적을 반환합니다.

2021년 6월 3일
 발신인 : 홍 길 동 (홍길동인)㉤

- ① ㉠: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추가해야 해.
- ② ㉡: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발신인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계약 철회 요청'으로 작성하면 좋겠어.
- ③ ㉢: 두 글자를 삭제하였으므로 삭제한 글자 수까지 명시하여 '2자 삭제'로 적어야 해.
- ④ ㉣: 요구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따라서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를 추가해야 해.
- ⑤ ㉤: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게 될 날짜를 밝혀야 해.

2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신인에게 분쟁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 ② 수신인에게 의사 표시를 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 ③ 발신인이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 ④ 발신인이 의사 표시를 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 ⑤ 발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해당 채무 관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그런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을은 주변의 조언을 받아 2020년 10월 31일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갑에게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①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 만료를 알리기 위함이다.
- ② 을이 보낸 내용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을이 내용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
- ④ 을이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 ⑤ 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는 2020년 10월 31일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명(功名)도 잊었노라 부귀(富貴)도 잊었노라
 세상(世上) 번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몸을 내마져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2수>

질가마 종이 씻고 바위 아래 샘물 길어
 팔죽 달게 쭈고 저리지* 꼬여 내니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하노라 <5수>

어화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6수>

대 막대 너를 보니 유신(有信)하고 반갑고야
 내 아이 적에 너를 타고 다니더니
 이제란 창(窓)뒤에 섰다가 날 뒤 세우고 다녀라 <11수>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 번우한: 괴로워 근심스러운.
 * 저리지: 걸절이.

(나)

한산(寒山) 어른 송계신보(宋季愼甫)가 나와는 사촌이 된다. 내가 일찍이 그 집에 가보니, 뒤로는 감악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큰 들을 임하여 초막집을 한 채 엮어 한가히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었다. 그 당명(堂名)이 무어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취한(就閑)*’이라 이름하려고 하는데, 미처 써 붙이지 못했다.”

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한(閑)은 본디 이 당(堂)이 소유한 것이거니와, 우리 형은 나이 70세가 넘어 하얀 수염에 붉은 얼굴로 여기에서 즐기며 바깥 세상에 바랄 것이 없으니, 어찌 아무 도와주는 것 없이 충분히 그 운취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건대, 당 한편에 애완(愛玩)*하여 심어놓은 것들이 있으니, 바로 대[竹]와 국화[菊]와 진송(秦松)과 노송(魯松)과 동백(冬柏)이요, 게다가 빙 둘러 사방의 산에는 또 창송(蒼松)이 만여 그루나 있으니,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세한(歲寒)의 절개가 있어 더위와 추위에도 지조를 변치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형께서는 늙을수록 건장하여 신기(神氣)가 쇠하지 않았는데도, 사방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이곳에 은거하여, 여기에서 노래하고 여기에서 춤추고 여기에서 마시고 취하고 자고 먹고 하니, 이 여섯 가지를 얻어서 벗으로 삼는다면 그 취미나 기상이 또한 서로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께서는 또 세상 변천과 세상 물정을 많이 겪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교우(交友) 관계가 처음에는 견고했다가 나중에는 틈이 생기어, 득세한 자에게는 열렬히 따르고 실세한 자에게는 그지없이 냉담하며, 땡땡거리는 자리에는 서로 나가고 적막한 자리에는 서로 기피하는 것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는 이런 가운데 성장하면서도 능히 풍상(風霜)을 겪고 우로(雨露)를 머금어 이제까지 울울창창하여서 앳고 늙고 기거하고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인과 함께하고 있으니, 차라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 세상의 격정을 피해서 자신의 천진(天真)*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당에는 실로 이 여섯 가지가 있고 웅(翁)께서 그 가운데에 처하시니, 어찌 ‘**㉞** 육우(六友)’라 이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한(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인하여 나에게 그 기문(記文)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 윤희, 「육우당기(六友堂記)」—

* 취한: 한가로움을 취함.

* 애완: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즐김.

* 천진: 세파에 젓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참됨.

2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쇄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물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수>: 화자는 ‘공명’과 ‘부귀’에 거리를 두는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② <2수>: 화자는 ‘남’으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5수>: 화자는 ‘팔죽’과 ‘저리지’를 통해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11수>: 화자는 ‘유신’하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11수>: 화자는 ‘대 막대’의 쓰임이 달라진 상황을 통해 세월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다.

28. ㉞와 ㉟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㉟는 글쓴이가 예찬하는 대상이다.
- ② ㉞는 화자의 그리움을, ㉟는 글쓴이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③ ㉞는 화자가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는, ㉟는 글쓴이가 본받고 싶어 하는 대상이다.
- ④ ㉞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㉟는 글쓴이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㉞는 화자의 상실감을 부각하는, ㉟는 글쓴이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대상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한(閑)을 추구하는 사촌 형에게 새로운 당명을 권하며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권력의 성쇠에 따라 변하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 벗하며 지조와 신의를 지켜 진정한 한(閑)의 의미를 실현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① 글쓴이는 사촌 형이 자연과 벗하며 ‘충분히 그 운취’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군.
- ② 글쓴이는 사촌 형이 ‘취미나 기상’에 어울리는 존재와 함께할 것을 바라며 새로운 당명을 권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적막한 자리’라도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한(閑)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대의 풍조’와 달리 변치 않는 지조와 신의 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천진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여기고 있군.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회사 일로 정신이 없
는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홍’과 늘 활기찬 후배 ‘구’를 보면
서 열등감을 느낀다. 부서의 인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에 내몰린 ‘나’는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이틀 후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리
끝이 쭈뼛 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사진이나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 ㉠ 손님을 대하듯 어서 오세요, 들
어오세요,라고 해야할지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와야 할
지 몰라서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더니 킷 안으로 쪽 들어왔다.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들리지 말 것, 들켰을 경우 쌍둥이라고 둘러댈
것,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 발생
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등의 내용이 장황하게 적혀 있었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
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
고 체크해야 하는 이용 약관과 비슷했다.

아무튼 ㉡ 함께 있는 모습을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
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었고, 나는 아이
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집에 들어갔다.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
럼 깔끔해졌다. 싱크대에는 물방울 하나 남아 있지 않았고 욕
실 바닥은 맨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보송보송했다. 베란다
창문은 반짝거렸고 세탁물은 섬유유연제의 향을 풍기며 반듯
하게 개켜져 있었다. 이를테면 ㉢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
자 완벽한 식기세척기, 구김 방지 스팀 기능은 물론 개킵 기능
까지 추가된 세탁기였다. 요리 솜씨도 뛰어나서 한식은 물론
케이크와 쿠키까지 척척 만들어냈다.

<중략>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트윈 싸
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의 세계뿐이었다. 담당자는 이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보
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답답했다.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어서 ‘그것’
과 교대했다.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
도 수준급이라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
였다.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 일의 진척을 확인하
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
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여유
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
도 가질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가하
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다.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
안일에 매여갔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홍건했고 싱크대 밑에서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있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었다는 것뿐이
었다.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렸다.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
다.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답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
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머리는 마음
에 들었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
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딱 끊어졌다.

“오전 중에 가능하죠?”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불러서 교
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과물을 본 홍의 얼굴이 굳어졌다.

[A]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
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낮췄다.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거 같은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다. 구였다.

[B]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 하고.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
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구와 홍에 대한
협담으로 친목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빈정거리주는 구가 오
히려 고마울 정도였다.

그 후로 오늘 좀 이상하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 ‘그것’이 회사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활약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곳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
해된 기분이었다.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
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와중
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 서유미, 「저건 사람도 아니다」 -

30.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② ㉡: ‘나’가 업체 측이 전한 유의사항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 ③ ㉢: ‘나’가 ‘그것’의 가사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④ ㉣: ‘나’가 만든 음식이 ‘그것’이 만든 음식과 비교되고 있다.
- ⑤ ㉤: ‘나’가 ‘그것’의 업무 능력을 짐작하며 안심하고 있다.

31. **집 안**과 **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사는 집 안과 달리 '나'와 대비되는 '그것'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② 집 안은 회사와 달리 '그것'으로 인해 '나'가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 ③ 집 안과 회사는 모두 '그것'을 통해 '나'가 문제 해결을 시도 하는 공간이다.
- ④ 집 안과 회사는 모두 '그것'으로 인해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공간이다.
- ⑤ 집 안은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고, 회사는 '나'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 ② [B]는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위로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고, [B]는 상대방을 비하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로 상대방을 시험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근 소설에서는 공상과학물(SF)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현대인이 처한 현실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은 공상과학물에 자주 등장하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로봇 도우미가 등장하는 것은 공상과학물의 상상력을 활용한 것이군.
- ②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처지를 보여 주는군.
- ③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인 로봇은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군.
- ④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리는 모습은 '나'의 사회적 위치가 로봇의 도움으로 회복된 것을 보여 주는군.
- 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로봇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드러내는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 감사가 된 김진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청하러 온 오랜 친구인 이혈룡을 박대하며 죽이려 한다. 기생 옥단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이혈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거지 차림으로 옥단춘을 만나고 김진희의 잔치 자리에도 나타난다.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혈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꿰려 놓으니, 김 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희야, 들어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 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이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내가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내가 연광정에서 호유*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혈룡의 귀신이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위협에 김 감사도 등골이 섬뜩하여 좌우 비장을 노려보며 어떻게 하라 하고 물으니, 비장이,

“아무래도 참말 같지 않사옵니다. 죽은 원혼이 어찌 사람 모습이 되어 올 수 있습니까? 그때 데리고 갔던 사공을 불러다가 문초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사공을 빨리 잡아들이라는 영을 내리니, 나졸들이 청령하고 나가서 잡아가면서 어르기를,

“야단났다, 야단났다. 너희들 사공 놈들 야단났다. 어서 빨리 들어가자.”

하고, 사공들의 덜미를 잡고 연광정 밑으로 가니,

“사공 놈을 잡아왔소.”

나졸들의 복명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회장의 옥단춘은 사공이 매에 못 이기고 사실대로 붙어 대면 자기도 죄를 당할 것이고, 그보다 귀신 아닌 자기의 서방님 이생원이 능지처참될 것을 생각하고 전신이 벌벌 떨렸으니, 김 감사는 불러서 형구를 차려 놓고,

“그놈을 능지가 되도록 때려서 문초하라.”

[A] 추상같은 엄명을 내리매, 형방조차 겁을 내고 뺏사공들을 치면서 얼러 대기를,

“이놈들 들어 보라. 저번에 너희들은 저기 저 양반을 영대로 물에 던져 죽였느냐? 바른대로 고하라!”

사공들은 악착같은 악형에 못 이기고 여차여차하였다고 사실대로 토설*하고 말았으니, 김 감사는 다른 형방에게,

“저 이혈룡은 목을 베어 죽여도 죄가 남을 놈인데, 아까 형방 놈은 내 앞에서 저놈을 양반이라고 불러서 존대하였으니, 그 형방 놈도 혈룡 놈과 죄가 같다!”

하고, 먼저 형방을 잡아 꿰리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책상을 치면서 호통치기를,

“전부터 내 수청도 거역한 요망스러운 기생년 옥단춘을 잡아내라!”

좌우 나졸이 일시에 달려들어 소복 단장한 채로 분결 같은 손목을 덤석 잡아서 끌어내리매, 연광정이 뒤집힐 듯이 살벌한 형장으로 일변하였으니, 평생에 이런 봉변을 만나 보지 않다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자 수족을 벌벌 떨면서 이혈룡을 돌아보고,

“여보시오, 이것이 웬일이오? 내가 것처럼 집을 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 정말로 귀신이 되려고 여기 왔소? 무슨 살매*가 들려서 죽을 곳을 찾아왔소? 내 집의 재물만으로도 호의호식 지낼 텐데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이오? 애고애고 우리 낭군 어찌하면 살 수 있소? 요전번에 죽을 목숨 살려 백년해로 언약하고 즐겁게 살려 하였더니, 일 년에 못 되어 이런 죽음 웬일이오? 애고애고 우리 낭군 야속하고 원통하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 낭군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 번 못 해보고 억울하게 황천객이 되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오. 아아, 낭군 팔자나 내 팔자나 전생의 무슨 죄로 이다지도 험악하던 말인가? 사주팔자가 이럴진대 누구를 원망하겠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우리이때, 저승에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이승에서 미진한 우리 정을 백 년 다시 살아 보십시오. 입아 입아, 우리 낭군 어찌하여 살아날까? 아무리 원통해서 저승에 만나자고 빌어 봐도 지금 한 번 죽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로다.”

하며 통곡하는 옥단춘의 정상을 누가 아니 슬퍼하라.

<중략>

그중에서 각 읍의 수령들은 불의의 변을 당하고 겁낸 거동 가관이다. 칼집 쥐고 오줌 싸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개울로 빠져들고, 말을 거꾸로 타기도 하고,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갈팡질팡 도망친다. 오다가 혼을 잃고 가다가 뉘를 잃고 수라장으로 요란할 제, 평양 감사 김진희의 거동이 가장 불만하니라.

김 감사는 수령들과 기생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 노닐다가, 암행어사 출도 통에 혼비백산 달아날 제, 연광정 누다락의 높은 마루 밑에서 떨어져서 삼흔칠백* 간 데 없고, 두 눈에 동자 부처가 벌써 떠나 멀리 가고, 청보에 똥을 싸고, 신발들메 하느라고 야단이라. 이때에 비장들이 달려들어 잡아 나꾸자, 어사또 그놈을 잡아내라고 추상같이 달려들어서 사지를 결박해서 어사또 앞으로 끌어다 얹어놓느니라.

“너희들 들어라! 남의 막하에 있어 관장이 악한 정사를 하면 바른길로 권할 것이지, 그러지 않고 악한 짓을 권하니, 무죄한 백성이 어찌 편히 살며, 양반이 어찌 도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호통을 하며, 형벌 제구를 내어놓고, 팔십 명 나졸 중에서 날랜 놈 십여 명을 골라서 형장을 잡히니라.

“너희들, 매질에 사정 두면 명령 거역으로 죽을 줄 알아라.”

엄명을 받은 용맹한 나졸들이 사정없이 불기 육십 대씩 때려서 큰칼을 썬워서 옥에 가두고, 김 감사를 마지막으로 다스리니라. 서리 나졸들이 감사의 상투를 거머잡고 끌어내면서,

“평양 감사 김진희 잡아 왔습니다.”

하고, 복명하는 소리가 진동하니라.

“너, 김진희 오늘부터 파직한다.”

— 작자 미상, 「옥단춘전」—

* 호유: 호화롭게 늙.
 * 토설: 숨겼던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 말할.
 * 살매: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초인적인 위력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길흉화복.
 * 삼흔칠백: 사람의 혼백을 통틀어 이르는 말.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여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말을 통하여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서술자 개입으로 인물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혈룡은 옥단춘과의 언약을 후회하였다.
- ② 김 감사는 이혈룡이 찾아올 것을 짐작하였다.
- ③ 비장은 김 감사의 호통에 이혈룡을 모함하였다.
- ④ 김 감사의 호의로 옥단춘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
- ⑤ 옥단춘은 이혈룡이 자신의 당부를 듣지 않아 낙담하였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암행어사 모티프를 사용하여 악인을 징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이라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천민 신분인 여성이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 점, 부도덕한 사대부와 대비되는 신의가 있는 존재로 그려진 점 등 당시의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① 친구인 이혈룡을 대하는 김 감사의 행위에서 우정을 저버리는 부도덕한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김 감사의 영을 거역한 죄로 뱃사공이 문초를 당하는 것은 악인을 징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군.
- ③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이혈룡을 걱정하는 옥단춘의 모습을 통해 신의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제 집의 재물만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옥단춘의 말을 통해 상당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무죄한 백성들을 괴롭힌 죄목으로 김 감사와 그 무리를 잡아 들인 것은 암행어사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37.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실직고(以實直告)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
- ② 결초보은(結草報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상부상조(相扶相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④ 각골통한(刻骨痛恨)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과 공학에서 ‘차원’이란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은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데 길이 단위인 미터(m),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kg), 시간 단위인 초(s) 등이 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이다.”라고 말할 때, 미터(m)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거리는 길이 ‘차원’에 해당한다. 미터(m), 킬로미터(km)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 표현하는데, 지름, 거리 등은 길이 차원이므로 [길이]로 표현한다.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이므로 [길이²]으로 표현하는데, [길이]와 [길이²]은 물리량의 성질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차원이다.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길이/시간]으로 차원을 표현한다. 이러한 차원을 ㉠ 분석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차원해석’이라 한다. 차원해석을 위해서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한다.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 ‘차원의 동일성’이라 한다.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v(속도)=s/t(거리/시간)’라는 수식에서 [속도]와 [길이/시간]은 차원이 같다.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들의 관계가 드러난다. 위의 식에서 [길이/시간]과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것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속도]=[길이/시간]+[질량]과 같은 수식은 성립할 수 없다. 수식에서 2, π와 같은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 무시한다.

다음으로 ‘무차원화’란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므로 차원이 없다는 것은 단위가 없다는 의미이다.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다. 전체 인원(N)에서의 순위(n)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으로 순위를 나누면 무차원화되어 상대적인 크기(n/N)만 남는다. 예를 들어, 참가 선수 100명(N) 중에서 10위(n)를 했다면 n/N=0.1에 해당하고, 20명 중 10위를 했다면 n/N=0.5에 해당한다. 무차원화된 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1과 0.5와 같이 차원이 없어져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편리하다. 이때는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 x와 y의 관계 대신, [A] 두 변수를 기준이 되는 양(A, B)으로 나누어 각각을 무차원화한 X, Y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X는 x/A, Y는 y/B 값이다.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차원해석을 해볼 수 있다.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을 향해 속도 v로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최대 높이(h)는 물체의 질량(m), 던지는 속도(v), 중력가속도(g)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 가정한다. h의 값은 각 변수들의

거듭제곱의 ㉣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h]=[m^a v^b g^c]$ 로 나타낼 수 있다. 각 변수의 차원은 $[h]=[길이]$, $[m]=[질량]$, $[v]=[길이/시간]$, $[g]=[길이/시간^2]$ 이다.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하므로 $a=0$, $b=2$, $c=-1$ 이 되면 우변에서 [길이] 외의 차원은 없어져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따라서 차원해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 정리할 수 있다.

$$h = C(v^2 / g)$$

[B] 중력가속도(g)는 정해진 값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위로 던진 물체의 최대 높이(h)는 질량과 관계가 없으며(m^0),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v^2)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원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 도출할 수 있다. 남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실험을 하면 상수값 C를 도출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차원해석을 활용하면 변수가 많아 복잡한 과학적, 공학적 문제의 의미를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었던 변수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의 실험이나 작업량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38.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차원화의 의미와 의의
- 차원의 동일성이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 ② 무차원화의 여러 가지 방법들
- 차원의 동일성과 변수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③ 차원해석의 역사와 방법
- 다양한 무차원화 이론을 중심으로
- ④ 차원해석의 이해와 의의
-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의 이해를 중심으로
- ⑤ 차원해석의 기능과 효율성
- 단위와 차원의 분류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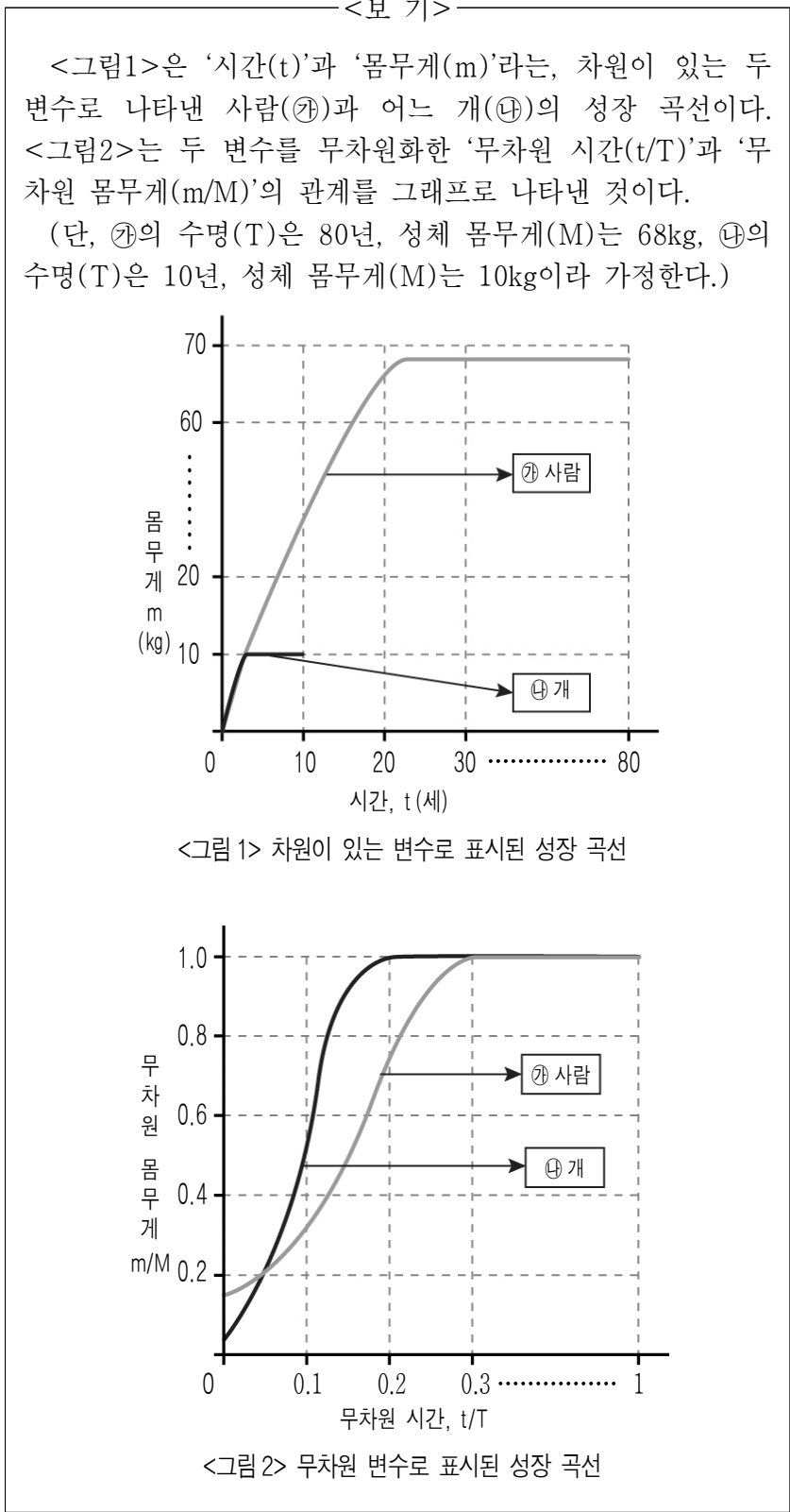
39. ㉠을 고려해 <보기>의 수식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면적 A를 구하는 식이 ‘ $A=2(B \times C) + \pi D$ ’라 가정한다.

- ① B, C, D 모두 [길이]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 ② B, C, D 모두 [길이²]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 ③ B와 C는 [길이], D는 [길이²]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 ④ B와 D는 [길이], C는 [길이²]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 ⑤ B는 [길이²], C와 D는 [길이]이어야 2와 π의 영향으로 차원이 같아져 수식이 성립한다.

40.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림1>에서는 ㉠과 ㉡가 각각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두 변수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 ② <그림1>에서는 ㉠과 ㉡의 수명이 달라 둘의 몸무게 변화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
- ③ <그림2>에서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보다 ㉠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그림2>에서 ㉡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빠르다.
- ⑤ <그림2>는 몸무게(m)를 성체 몸무게(M)로, 시간(t)을 수명(T)으로 나누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41. [B]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변수들의 관계보다 상수값 C를 아는 게 중요하군.
- ② g를 제공하여서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군.
- ③ 차원해석으로 h는 v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군.
- ⑤ a, b, c의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되겠군.

42.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 요소나 성질로 나눔.
- ② ㉡: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 ③ ㉢: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로 짬.
- ④ ㉣: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 ⑤ ㉤: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잴.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덥석 / 한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 오세영, 「열매」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 시우쇠: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서 받은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흐름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털보네 대장간’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여 탈바꿈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지사 해우소’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을 통해 현실과 일시적으로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상징적 소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그리고 있다. (가)는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며 원만한 삶의 태도와 자기희생적 정신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다. (나)는 플라스틱 제품과 대장간의 농기구를 통해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 날카로운 ‘뿌리’와 대비되는 둥근 ‘열매’의 모습에서 원만한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군.
- ② (가):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에서 다른 생명을 위한 자기희생의 자세를 볼 수 있군.
- ③ (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가 둥글다는 인식은 열매의 모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나):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물건은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나): ‘꼬부랑 호미’가 ‘송진’을 흘리며 벽에 걸린 모습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